

마침내 안양문화예술재단 출범한다

안양시의회 제156회 임시회 보사환경상임위서 원안 수정해 의결

[2008-10-17 오후 3:22:00]

안양시 문화예술재단이 내년 1월 드디어 출범한다.

안양시의회 제156회 임시회에서 보사환경상임위원회(위원장 이동기)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행부가 상정한 안양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듭한 끝에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했으며, 22일 본회의에서 결정하게 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안건을 존중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해 왔던 사례로 보아 큰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여겨진다.

안양시는 문예회관, 평촌아트홀, 알바로시자홀, 시민축제사무국, 유유부지 전시관을 위탁 대상으로 하여 지역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및 예술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올 12월까지 문화예술재단 설립 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문화예술재단 설립은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맡았던 문화기획부분을 전문화하고, 안양시의 문화관련사업의 단순 배분 방식을 육성 과 지원방식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진행돼 왔다.

한동안 잠잠했던 문화예술재단 설립을 다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이필운 안양시장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방침이 알려지면서부터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단 조직은 시장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비롯, 15명 이내의 이사(비상근)와 2명의 감사(비상근)를 두고 3명의 이사는 시의원으로 하여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요청했으며,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평촌아트홀과 문예회관 조직과 인력 33명을 고용승계하고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인력을 일부 총원할 계획이다. 또한 결산서제출과 사업계획서를 시장과 의회에 제출토록 조례 원안을 수정하여 의결했다.

안양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5년 추진됐다가 무산된 지 3년 만에 다시 추진되었고 그동안 찬성과 반대 에 대한 많은 말들이 오가며 이목이 집중되어 왔었다.